

대구문화재단 출범 “문화도시 경쟁력 배양”

대구시는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을 위해 대구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달 25일 대구문화재단 창립총회를 갖고 이사진을 구성한 뒤 다음달 중 본격적인 재단설립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을 비롯해△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창의성 제고△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국내·외 문화예술 교류△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등을 펼친다.

대구문화재단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잉여금 150억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44억원 등 모두 194억원의 자산으로 출발해 500억원의 기금을 모을 계획이다. 사무실은 중구 옛 대구상고 본관 건물을 활용한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발기인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열었다. 이날 발기인 총회에서는 대구문화재단 설립 추진경과와 재단설립계획을 소개하고 ‘재단설립 취지문 채택’과 ‘재단정관 발의’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출’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김대권 대구시문화예술과장은 "대구문화재단은 영남의 중심인 대구의 역사적·문화적 전통과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대구의 경쟁력을 배양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박태우기자 taewoo@kyunghyang.com>